저축은행 퇴직연금 빠른 성장세 자산건전성 강한 'DC·IRP' 절반

퇴직연금 잔액 작년말 6.7조 돌파
페퍼저축銀 수신잔액 업계 첫 1조
OK저축·SBI저축 70%가 DI·IRP

저축은행의 퇴직연금 사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저축은행이 퇴직상품을 판매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예금잔액이 급증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퇴직연금시장 전체적으로는 DB형이 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저축은행만 놓고보면 DC·IRP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DC·IRP형 퇴직연금의 운용주체가 근로자이니만큼 예금자 보호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DB형 상품은 기업이 운용주체로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퇴직연금 예금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 6조7000억원을 돌파했다. 2018년 11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1년이 지난 시점을 감안하면 빠른 성장세다.

저축은행업계에서 퇴직연금 시장은 페퍼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이 규모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약 25곳의 저축은행이 퇴직연금 상품을 취급한다.

우선 페퍼저축은행은 업계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자체 집계 기준으로 수신잔액 1조원을 돌파했다. 이어 한달 간격으로 OK저축은행도 1조원을 넘어섰고 SBI저축은행도 이달 1조원을 넘기는데 성공했다.

세 곳의 퇴직연금 비중을 살펴보면 페퍼저축은행 경우 DC·IRP형 퇴직연금이 95%를 차지하며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도 전체의 약 70%가 DC·IRP형이다.

이는 저축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고객들이 수익성을 보고 예금을 넣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이 강화되면서 예금자보호법까지 받을 수 있는 것도 신뢰를 더한다.

실제 2월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금리(12개월 세전 기준)를 살펴보면 페퍼저축은행은 DC·IRP 상품이 연 1.95%, DB가 연 2.2%이다. 또 OK저축은행은 각각 2.1%, 2.3% 수준이며 SBI저축은행은 연 2%, 연 2.4% 수준이다.

시중은행 평균 수익률이 1.4%에서 1.8%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가 꽤나 높은 셈이다.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저축은행 퇴직연금 수신액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원하는 사람만 카드 종이 영수증"

여신금융 카드단말기 관련 규정 개정
단말기에 영수증 출력·미출력 기능

오는 3월부터 새로 출시되는 카드단말기에 영수증 출력·미출력 기능이 탑재된다. 카드 결제 시 소비자가 종이 영수증과 전자 영수증 중 발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진 점이 반영됐다.

여신금융협회는 13일 신규 출시되는 카드 단말기에 영수증 출력·미출력 기능을 탑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새로운 카드 단말기는 여신금융협회 단말기 인증 등 절차를 거쳐 3월 중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카드 영수증이 대부분 현장에서 버려지고 있는 현실과 소비자 및 가맹점이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진 데 따른 조치다.

그간 협회는 카드 영수증의 선택적 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소비자가 카드 영수증을 교부받지 않더라도 카드사 홈페이지 및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등을 통해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

소비자는 실물 카드의 영수증이 없어도 상품을 교환·환불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카드결제시 사용했던 실물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고객센터에서 카드결제 취소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협회는 현재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의 경우 가맹점이 원할 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 설치 회사(밴사 또는 밴대리점)에 선택발급 기능 추가를 요청한 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협회는 카드 영수증을 선택적으로 발급하면서 영수증을 원치 않는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소비자와 가맹점 간 거래시간을 단축해 카드 결제 거래 당사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상거래 문화가 더욱 편리하고 간편하게 바뀌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협회와 카드업계는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소비자 및 가맹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소비자가 편리하게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휴대전화 앱 등의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카드 영수증의 선택적 발급으로 신용카드 결제 프로세스가 한 번 더 간편해졌다"며 "카드업계는 지불결제 시장에서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고 리드할 수 있도록 카드산업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홍민영 기자

하나銀-SBI저축銀, 업계 첫 외환업무 제휴

해외송금·외화환전 솔루션 제공
24시간 365일, 200여개국에 송금
전문 사후관리로 차별화된 서비스

지난 12일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조종형 하나은행 외환사업단장(오른쪽)이 유현국 SBI저축은행 리테일영업본부장과 포즈를 취했다.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지난 12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SBI저축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송금 및 외화환전 서비스 등 외환서비스에 대한 양사간 연계 및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업계 최고 수준의 외환서비스 솔루션과 시스템을 SBI저축은행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SBI저축은행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사용하는 고객도 간편한 해외 송금이 가능한 '하나 이지(Hana EZ)' 앱 기반 해외송금과 하나은행의 대표적 모바일 환전 서비스인 '환전지갑'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과 제휴한 해외송금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전 세계 200여개국에 빠르고 간편한 송금이 가능하다. 실시간 송금 상태 조회, 전문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도 가능해 타 금융기관 및 소액송금 업체와는 차별화된 하나은행만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전지갑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통해 12종의 주요 통화를 쉽게 환전·보관할 수 있고 우대 환율도 자동으로 적용된다. 환전이 완료된 통화는 언제든 원하는 때에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다시 원화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협약은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간 첫 번째 업무 제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하나은행은 외환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개발하고 SBI저축은행은 이를 활용한 내부 시스템 연계 및 신규 외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민영 기자 hong93@

우리비상금대출 모바일뱅킹서 간편하게

우리은행은 작년 7월 선보인 '우리비상금대출'을 우리은행 모바일뱅킹인 '우리 원(WON)뱅킹'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비상금대출은 소득정보가 없거나 금융거래이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웠던 고객들도 신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신용평가 시 은행·카드사 등에서 제공하는 금융정보 중심의 전통적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통신 3사(SKT, KT, LGU+)에서 제공하는 휴대전화 기기정보·요금납부 내역·소액결제 내역 등을 바탕으로 신용평가사에서 산정한 통신사신용등급(Tele-Score)을 활용한다. 최근까지 우리은행의 모바일 간편뱅킹 '위비뱅크'와 뱅크샐러드 앱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했다.

대출한도는 통신사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0만원이며, 1년 만기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으로만 취급된다. 통신사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0.50% 포인트까지 우대된다. 13일 기준 최저 대출금리는 4.15%다.

대출대상은 우리은행 입출금 계좌를 보유하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통신 3사에서 이용 중인 개인으로, 고객은 소득정보나 직장정보 입력없이 '우리 원뱅킹' 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홍민영 기자

밸런타인 맞아 꽃선물하고 화훼농가도 돕는다

신한銀 '꽃다발 나눔 캠페인'

신한은행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꽃으로 전하는 '꽃다발 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꽃다발 나눔 캠페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졸업식, 입학식 등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신한은행 꽃다발 나눔 캠페인은 행내 오피니언 리더그룹을 통해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캠페인은 행원·대리급 오피니언 리더그룹 '영 포스(Young Force)', 과·차장급 오피니언 리더그룹 '에스 포스(S-Force)' 직원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동료 직원에게 릴레이 방식으로 꽃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꽃다발 릴레이', 영업점 방문 고객들에게 꽃을 증정하는 '장미꽃 증정 이벤트' 등 각 영업점에서 다양한 형태로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달 들어 졸업식, 입학식 등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화훼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며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카드, 자동납부시 아파트관리비 할인

우리카드는 아파트 관리비 할인 혜택에 특화된 '카드의정석 아파트(APT)'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카드의정석 아파트 플래티넘', '카드의정석 아파트', '카드의정석 아파트 체크' 로 신용카드 2종과 체크카드 1종으로 구성돼 있다.

신용카드는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납부하면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1만5000원 (연간 최대 18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는 월 최대 1만원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에는 도시가스 자동납부 3000원 할인, 유튜브 프리미엄 및 넷플릭스 정기권 30% 할인이 공통으로 탑재됐다. 체크카드도 유튜브 프리미엄 정기권 30% 할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홍민영 기자